

LG-D, LCD 특허소송 “패색”

미국법원, 타이완 AUO 손들어 ... 판결 이후 항소·협상 방침

LG디스플레이가 미국에서 진행해온 타이완의 LCD(Liquid Crystal Display) 제조기업 AUO와의 특허소송에서 다소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5월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와 AUO 간의 특허침해 맞소송을 맡은 미 델라웨어 웰빙턴 연방법원은 4월30일 AUO가 LG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허소송은 2006년 LG디스플레이가 AUO 및 CMO 등 타이완기업들이 자사의 공정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으며, AUO는 LG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3년 이상을 끌어온 특허소송에서 미국법원은 2월 LG디스플레이가 AUO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다시 AUO에 유리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최종판결은 아니지만, 일단 LG디스플레이의 패소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AUO는 LG디스플레이의 LCD와 완제품의 미국수입과 판매를 금지시키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공세를 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는 유사한 사안을 놓고 CPT와 벌인 소송에선 이긴 바 있어 AUO와의 공방전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것은 담당판사의 의견으로 판결이 아니며 앞으로 한 달 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판결 이후에 항소하거나 AUO와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03>